

워싱턴 DC, 가톨릭 디스턴스 대학교 갈라에서 영예를 얻은 수녀들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표하는 동시에, 미군 부대 대교구장이자 가톨릭 디스턴스 대학교 총장인 티모시 브롤리오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 명의 가톨릭 디스턴스 대학교(CDU) 구성원들이 그들의 두드러진 투신과 교회와 학교의 사명에 대한 봉사를 인정받아, 교회와 교황을 위한 교황청 영예의 십자가가 수여되었습니다.

- 찰스 바사프 박사, 가톨릭 디스턴스 대학교 신탁 이사회의 첫 번째 평신도 의장
- 메리 브렌든 자약, SND, 이사회 회원, 가톨릭 디스턴스 대학교 강사, 인증 자문
- 메리 마가렛 앤 슬래더, SND, 가톨릭 디스턴스 대학교 교리 프로그램 학장이자 인증 연락책

교황 메달이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워싱턴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경당에서 열린 연례 CDU 갈라에서 수여되었습니다.

메리 브렌든 수녀는 가톨릭 디스턴스 대학교의 신탁 이사회에서 9년간 봉사했으며 수감자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조언을 해주는 일부터 CDU 인증 과정을 통해 안내를 돕는 일까지 많은 역량을 보이며 관대히 기여해 주었습니다. 메리 마가렛 앤 수녀는 6월에 은퇴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CDU 교리 프로그램 학장으로 일했습니다. 대교구장 브롤리오는 그의 설명에서 자신의 사제직뿐만 아니라 CDU 창설에 대해서도 노틀담 수녀들(클리블랜드)이 미친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금으로 된 메달은 공식적으로 *Pro Ecclesia et Pontifice*라(문자 그대로 “교회와 교황을 위해”)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교황이 평신도와 성직자들에게 수여하는 가장 높은 영예 중 하나입니다. 메달은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왼쪽 팔에는 *Pro Ecclesia* (교회를 위해)라 새겨져 있고 오른쪽 팔에는 *Et Pontifice* 가 있습니다. 십자가 팔의 바닥 끝부분에는 교황의 문장이 있습니다. 다른 팔의 끝부분에는 작은 그리스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달은 진품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 명하시어 *교회와 교황을 위해*라는 위엄있는 십자가를 (이름)의 뛰어난 업적과 열정에 대해 (날짜) 수여합니다.’라는 라틴 명문이 담긴 교황청의 증명서를 동반합니다.

또한 같은 행사에서 영예를 누린 이는 워드 온 파이어 창립자인 LA 대교구 부주교인 로버트 배런이었습니다. 배런 주교는, CDU의 가장 큰 영예의 상으로써 교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이 학교의 사명을 지지한 개인을 인정하는 창립자 상을 받았습니다.